www.hub4u.or.kr

더 큰 세상 함께 하는 미래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

online newsletter

탈북청소년들이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2017 Vol. 23 | wint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기획기사 •• 02

이야기로 풀어가는 문해력 증진과 마음의 성장

칼럼 •• 06

탈북학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터뷰 •• 09

나눔, 만남 그리고 성장

현장스케치 •• 12

1. NK교사아카데미
2.포럼
3.우수사례

센터활동소식 •• 20

센터발간자료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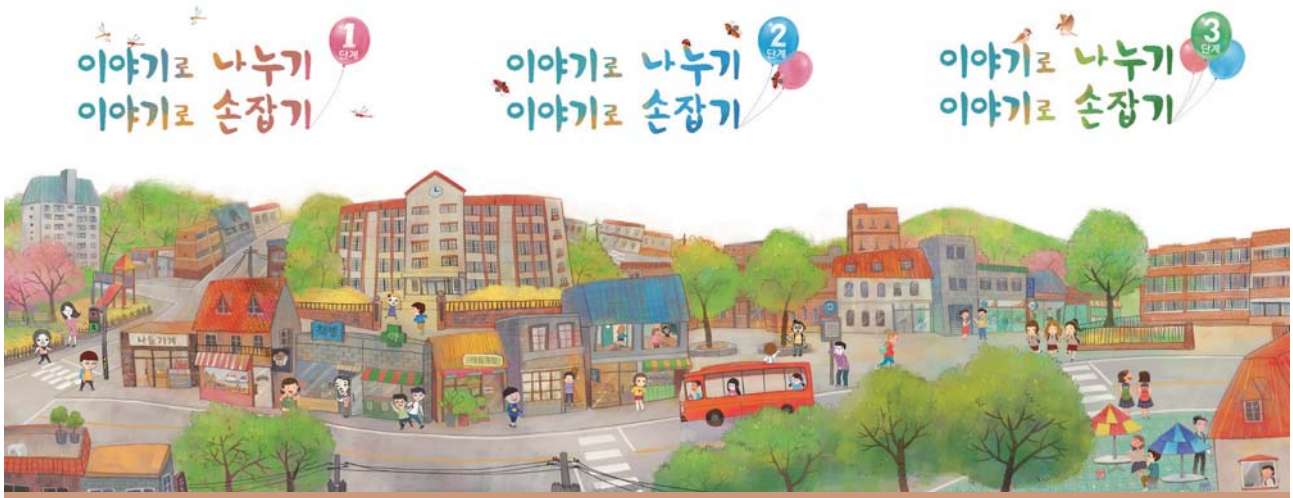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online newsletter
2017 Vol. 23 | wint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이야기로 풀어가는 **문해력 증진과 마음의 성장**

탈북학생을 위한 문해력 증진 교재 <이야기로 나누기 이야기로 손잡기>

● **오윤주** | 수일여중 교사



<이야기로 나누기 이야기로 손잡기> 1, 2, 3단계 표지 - 3단계 표지의 그림이 이어진다.

<이야기로 나누기 이야기로 손잡기>는 탈북학생을 위한 문해력 증진 교재로 개발되었다. 탈북학생이 한국에서 새로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교재의 집필진은 언어와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인 '문해력'에 주목하였다. 언어 문해력과 사회 문화적 문해력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탈북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목표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 통합적으로 학습해 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은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들이 탈북학생들을 위해 새로이 집필한 것이라는 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기획 의도 :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한국 사회에 도착한 탈북학생은 낯선 언어적 풍경 앞에 당도한다. 남북의 언어는 분단의 시간만큼이나 서로 많이 달라져 왔다. 어휘가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며,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다르다. 외래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은어나 신조어가 생겨난다. 교실에서 쓰는 학습 어휘들도 남북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언어 문해력은 학습의 기본이 되고, 일상 속 관계 맺기의 질을 좌우하기도 한다. 탈북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친구나 사회 속에서의 자리 매김을 돕기 위해서는 문해력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탈북학생의 문해적 어려움은 어휘나 문법이 다른 데서 오는 것 만큼이나 사회 ·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서 온다. '서바이벌 오디션'이 무엇인지, '파워 블로그'가 무엇인지는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공유하고 향유하는지, 그 뒤에 숨은 사회 · 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런 현상들에 대해 스스로의 의식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창조적으로 맥락을 만들어가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언어 · 사회문화적 문해력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와 함께 탈북학생은 청소년기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들을 더욱 극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다. 사랑

교재 검토 회의 장면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경험이 결핍되었을 때 그 상처와 좌절의 순간은 학생의 인지 · 정서적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탈북학생들은 '다름'의 표지들이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의 눈에 부정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된다. 북한 사투리로 놀림을 받는다거나 남한학교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고민될 때, 탈북학생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기안으로 움츠러들기도 한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탈북학생들을 도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야기는 즐거움의 매력으로 독자를 끌어들이고, 동일시와 이입, 거리두기의 작용을 통해 심리적 치유와 성장의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야기의 매력을 통해 언어 · 사회문화적 문해력에 대한 학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야기에 녹아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언어 규범이나 어휘, 화용, 담화, 맥락 등에 대한 문해력 학습이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추진 과정 :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교재의 집필을 위해 우리는 먼저 탈북학생 문해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및 교재들을 검토하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이상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기로 하였다.

내용 구성은 크게 언어 범주와 사회 · 문화적 상황으로 구분하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각 단계에서 문해력 요소들을 적절하게 반복, 심화하여 제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각 단계의 단원에 대한 큰 틀을 구성하였다.

각 단원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들을 섭외하여 창작 의뢰하였다. 작가들 모두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공감하면서 흔쾌히 참여해 주었다.

작가 섭외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교재 만들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교재 집필진과 작가들은 협의회를 통해 교재의 방향에 대해 교감하고 구체적인 이야기 창작 방향을 논의했다. 작가들이 작성한 시놉시스를 검토하고 이를 문해력 교재의 방향과 잘 맞아떨어지도록 수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또한 이야기에 진정성과 실제성을 담기 위해 탈북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해력과 관련된 경험 사례를 공모하고, 탈북학생들과 작가, 집필진이 만나 구체적인 사례를 탐색하기도 하였다. 초고 원고가 오가고 다시 수정 · 보완하는 작업들이 이어지면서 교재 집필 과정은 더욱 활기를 띠어 갔다.

이렇게 작가들이 완성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교재 집필진은 단원의 활동을 구안하고 삽화 및 편집 계획을 만들어 갔다. 삽화 작가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미와 흥미가 가득한 동시에 탈북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의 완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모았다. 계속되는 교정과 재검토의 과정들을 거쳐 드디어 교재가 완성되어 탈북학생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교재를 만든 이들이 교재 안에 담은 정성과 마음들이 온전히 탈북학생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교재 맛보기 - 어떤 교재인가?

교재의 각 단원들은 다양한 주제의 내러티브를 통해 학습자의 삶과 문화 · 심리적 학습 상황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교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를 소개하기 위해 전체 20개 단원 중 두 단원을 골라 간략히 보기로 한다.

1단계의 여섯째 단원인 <두부밥과 밥만두를 판다고?>에서는 음식 문화와 언어 생활을 엮어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홍종의 작가가 <우리 엄마는 몇 점?>이라는 동화 작품을 집필하고, 집필진이 이를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야기 속 '나'는 북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온 학생이다. 엄마는 학교 앞에서 푸드트럭을 하기로 하는데, 푸드트럭 이름을 '북한 맛'이라고 짓고 북한에서 즐기는 음식인 '두부밥'과 '밥만두'를 팔기로 한다. '나'는 이로 인해 '나'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조마조마해 하며 일부러 푸드트럭을 피해 다닌다. 친구들은 엄마의 푸드트럭 음식을 먹어보고는 맛이 있다며 후한 평가를 내리는데, 입맛 까다로운 반 친구 소미마저 엄마의 음식이 맛있다고 하자 '나'의 마음속에서 엄마의 점수는 쑥 상향선을 그린다.

탈북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문화나 전통 역시 소중한 것이며 남한의 문화와 만나 서로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고 있는 단원이다. 탈북학생들은 '나'의 마음에 자신을 겹쳐 보며 자존감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음식에 관한 어휘 문해력을 신장하고,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기초 문해력을 튼튼히 하게 된다.

3단계의 첫 단원인 <직진하는 말 돌아가는 말>은 남한과 북한의 말하는 방식에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소통의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능력을 학습 내용으로 하였다. 선안나 작가가 집필한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에서는 북에서 온 '용미'가 돌직구 화법으로 친구들과 서걱서걱 갈등을 겪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남한의 완곡 화법에 익숙한 친구들은 '용미'의 직설적인 말하기 방식에 서운해 하지만, '용미'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차츰 용미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어가게 된다. 아울러 이 이야기는 '은주'와 '용미'가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서로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까지를 이야기하며 탈북학생들이 겪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고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이야기를 읽고 난 후 학습활동을 통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남한과 북한의 말하기 방식이 어떻게 서로 같고 다른지, 서로 어떤 장 · 단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는 말하기 능력을 배우게 된다. 또한 학습자가 가진 관계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확장적인 활동까지 나아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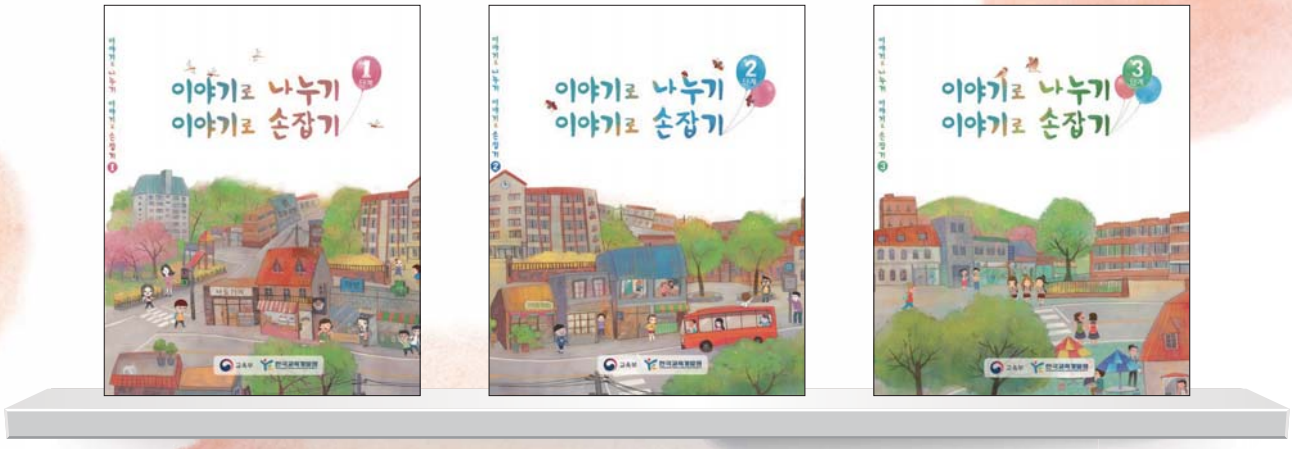
교재의 역할과 전망

이 교재는 탈북학생을 주요 학습자로 상정하고, 탈북학생의 문해력 증진을 위한 교재로서 구안되었다.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읽으며 학습할 수 있도록 낱말 뜻이나 어려운 용어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고, 주요 학습 내용은 캐릭터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등 친절하고 세심하게 단원을 구성하였다. 또한 활용의 상황에 따라 교사가 활동을 안내하고 학습자들이 함께 활동형 수업을 해 가는 방식으로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 교재는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탈북학생뿐 아니라 남한 학생들의 교실 혹은 통합 교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탈북학생의 어려움은 그들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주변의 이해 부족으로부터 오기도 한다. 교재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탈북학생은 자신의 상황을 이입하여 공감하며 정서적 힘을 키워갈 것이고, 남한 학생들은 잘 알지 못했던 탈북학생들의 상황이나 문화, 마음을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과 평화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6단원의 <통일 한국, 청소년들이 만드는 새 말 풍경>은 그러한 기대를 상상 속에서 그리고 있는 이야기이다.

탈북학생은 '통일의 미래를 미리 가져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문해력 신장뿐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정서적 성장을 이루어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려갈 수 있도록, 또한 이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통일과 평화, 배려와 공존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교재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집필진 모두가 마음을 다해 교재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향후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더하여 보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탈북학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2016년 제2차 탈북학생 교육지원 교사 직무연수 스케치

● 김성원 | 온라인<뉴코리아뉴스> · 계간<통일코리아> 편집장

국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매년 낮아져서 2016년에는 2.1%를 기록하였다.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은 2008년 10.8%를 기록해 한 때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 후로 꾸준히 낮아져서 2010년 4.9%, 2012년 3.3%, 2014년 2.5% 그리고 2016년에는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꾸준히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정책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원 프로그램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탈북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고를 꼽지 않을 수가 없다.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교사 직무연수를 위해서 한여름 무더위를 뚫고 전국의 교사들이 모인 것도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사들의 열의가 돋보이는 것이었다. 지난 2016년 8월 8~9일 이틀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 연수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연구관은 "탈북학생 교육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탈북학생 지도 교사들의 노력과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해 동안 연수를 진행해왔는데 탈북학생들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고 실천해 오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해마다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은 이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성과 자체를 '통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남북은 한민족이라고 언급하기가 무색할 만큼 어려움을 겪어 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통일이 가까워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이야 말로 탈북학생들이 어떻게 통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지를 보고 듣고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직무연수의 초점은 탈북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탈북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탈북학생 지도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데 맞춰졌으며, 이를 위해 북한 사회의 최근 변화와 북한 학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문가 강의도 마련됐다.

탈북학생에게 다가가기

우리나라의 탈북학생 교육 단계는 이렇다. 우선 하나원에서 12주간 머무는 동안 유·초등생은 하나원 근처 삼죽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중·고생은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 다닌다.

이후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거주지 배정을 받고 바로 해당 거주지의 일반 학교에 입학하거나, 학업적응이 좀 더 필요한 탈북학생들은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전·입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학교는 일반 학교로 가기 위한 전환기 학교인 셈이다.

연수 첫 날, 이들 학교(하나둘 학교, 삼죽 초등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사들이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탈북학생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지 실제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Q&A

다음은 직무연수 참가자들과 탈북학생 적응 학교 교사들이 주고받은 질의응답이다.

Q 한국에 막 들어온 탈북학생들의 처음 모습은 어떤가?

A **조형국 삼죽초등학교 교사** : 북한에서 바로 온 학생들은 참 착하다. 반면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와야 하는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온 학생의 경우 요즘엔 식량문제 때문이 아니라 더 잘 살겠다고 오는 경우도 봤다. 하나원 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과거엔 탈북학생들이 꾀죄죄하고 삐쩍 마른 모습이었는데 요즘엔 통통하고 부모님이 잘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탈북학생들의 배경이나 성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Q 탈북학생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나?

A **전치균 한겨레고등학교 교사** : 저는 12년째 학생들과 기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전에 1년간 하나원에 있으면서 '감정이입은 최소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들어갔다.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 심리적으로 너무 큰 소진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탈북학생 한 명 한 명 다 사정이 있기에 매번 감정이입을 한다면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탈북학생들의 문제에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이 내가 12년째 이 학교에서 교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Q 일반 학교 교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A **조형국 삼죽초등학교 교사** : 아이들이 처음엔 순수하게 받아들이려 하고 조금만 길을 알려주면 12주간 행복하게 지내다 나간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정착지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 무거운 짐은 정착지 학교 선생님들이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A **전치균 한겨레고등학교 교사** : 탈북교육의 완성은 정착지 학교에서 묻어나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에서 12년간 교사를 하고 있지만 탈북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다 잘 적응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겨레 고등학교를 다니다 일반 학교로 가게 되면 탈북학생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다.

첫날 저녁시간은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와의 대화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한 학교에 탈북학생이 15명 이상이 될 경우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파견하는 도우미 교사다.

현재 전국 21개 학교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다. 이날에는 인천동방초등학교, 경서중학교, 인천논현중학교에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참여했다. 그 중에서 최 코디네이터와의 대화와 토론 자리를 찾았다. 최 코디네이터는 북한에서 8년간 교사를 했었다.

최 코디네이터와의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고민과 배움을 깊이 공유하는 것 같았다.

Q 북한에서는 초등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던데?

A 그렇다.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그래서 권위도 생기지 않나 싶다. 중·고·대학교에서도 한 담임이 계속 쭉 간다. 사회주의 교육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Q 북한에서의 체벌은?

A 많이 때린다. 북한도 정책적으로는 때리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교육현장에서는 막대기로 머리도 때려보고 줄자로 손바닥도 때려보고 그런다. 어쩔 수 없다.

Q 학교 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탈북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탈북학생이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는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도 그랬었고 제 자녀도 그랬고 내가 가르친 학교에서도 그랬다. 내가 학교로 파견된 이후로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탈북학생의 경우 폭력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혼내고 가르쳐줘야 한다.

Q 북한에도 상담 교사가 있나?

A 상담 교사가 따로 없고 담임 선생이 다 한다. 물론 조직지도 교사는 따로 있다. 탈북학생도 관심 주고 사랑 주면 다 마음을 연다.

Q 북한의 학생들은 사춘기를 어떻게 표출하나?

A 북한엔 사춘기가 따로 없다. 물론 사춘기가 있을텐데 북한 사회가 너무 억누르니까 사춘기를 모르고 자라는 것 같다. 제3국 출신(중국 출생), 북한 출신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주로 북한에서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선생님께 많이 대드는 것 같다. 그런 학생들도 남한에 와서 처음엔 대들다가 1~2년 지나면 다 말을 잘 듣는다.

Q 탈북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A (탈북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편견이라고 본다. 그 부분은 늘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문이다. 탈북학생 데리고 수련회 갈 때 식당을 예약하면 말투가 다르니까 물어본다. '북한에서 왔다'고 대답하면 '왜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본다. 그게 편견인 것이다.

북한, 탈북민 이해하기

이밖에 탈북학생과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 강의가 열렸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과거, 현재, 미래'강의에서 "탈북학생들은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 모든 걸 무상으로 받다가 남한에 와서 갑자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탈북학생을, 그 체제를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그러면서 "주류 다수의 구성원들이 '뉴 커머(new comer)'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그건 폭력"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탈북학생들의 상황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교육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지수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팀장은 '북한 교육의 이해'라는 강의를 통해 북한 교육의 역사와 특징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었다. 김 팀장은 "북한사회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통계가 사라졌다. 사회의 주요통계를 집권자들만 공유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학교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이런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란 북한 학생들은 자율적인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교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있지만, 탈북학생 교육지원 교사 직무연수는 그 중에서도 인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현실적이고 알차기 때문이다. 이번 직무연수에 참여한 김남희 용산고 교사(수학)는 "연수에 참여하면서 북한이나 탈북민에 대해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며 "이런 연수프로그램이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HOPE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나눔**, 만남 그리고 **성장**

● **채수향** | 2016년 HOPE프로그램 재능기부자
● **정서윤**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인터뷰 정리 및 글

KEDI :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뉴스레터 인터뷰를 맡은 정서윤연구원입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일단 선생님에 대한 소개와 탈북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HOPE'에 재능기부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탈북학생에 대한 관심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용기술을 배우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왔는데, 현재는 '1365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기부용 천연비누 만들기, 손맛사지 등의 자원봉사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5년 2회에 걸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미용교육을 열어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충청남도 지역 탈북자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네일아트, 손맛사지, 페이스페인팅 등의 자원봉사를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탈북학생들도 이·미용기술에 참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미용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탈북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북학생을 연결 받을 수 있는 곳을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한 탈북민의 소개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탈북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HOPE'를 알게 되어 바로 재능기부자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KEDI : **그렇다면 미용전문가로서 HOPE프로그램에서 탈북학생과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요?**

미용분야는 세부적으로 헤어,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멘티 학생이 그 중 어느 분야에 흥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어떤 분야에서 미래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OPE 6기'에서 만나 멘토를 하게 된 멘티학생 수정(가명)이와의 상담을 통해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세 가지 분야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한분만이 아닌 종합수업을 통해 미용분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헤어 분야에서는 긴머리 퍼머기법, 짧은머리 퍼머기법, 드라이기법, 올림머리기법 등을 익히고, 네일아트 분야에서는 컬러링기법, 프렌치칼라, 딥프렌치칼라, 그라데이션기법, 도트기법, 스톤기법, 라인테이프기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눈썹

그리기, 기초화장기법, 계절화장(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을 교육하며 분야별 특징을 이해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이런 학습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멘티 학생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1365 자원봉사센터'재능기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기부용 천연비누 만들기와 손 맛사지 교육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KEDI : **멘티 학생이 선생님을 통해 배움과 나눔을 함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면 특별히 인상 깊었던 일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멘티 학생이 20 여분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는 더워하며 힘들어 할 때 함께 잠깐의 휴식을 가지며 학교생활에서의 친구들과 다퉜던 일과 부모님과의 작은 갈등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멘티 학생이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한국어가 서툴러 소극적이고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다가 이날 처음으로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멘티 학생이 저를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친구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됐는지 학생에게 물어봤는데

"친구와 바로 화해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하며 잘 적응하며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잘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교육활동이 어린 학생에게는 다소 힘들 수도 있었는데 항상 성실하고 밝게 웃으며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여 다른 학생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매시간 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미적 감각도 좋아 교육에 대한 습득효과가 매우 높아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KEDI : **훌륭한 멘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학생도 매우 훌륭하네요. HOPE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멘티 학생과 많이 친해졌을 것 같은데,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멘티에게 많은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미용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영원한 산업으로 진로를 미용분야로 선택한 만큼 앞으로 끊임없이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계발을 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미용 전문인으로 입문하는 과정은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나 본 교육과정은 종합과정으로 분야별 기초를 교육하며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맛보기 정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멘티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다양하게 지도할 수 있었기에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익혀서 선택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증폭되어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KEDI : **선생님의 조언대로 멘티 학생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HOPE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 추가로 더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활동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분야 중에서 자격증과정에 도전하여 진로를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진행되면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면 좀 더 구체적인 체험방식이 첨부되어 산업체인 미용실이나 피부샵, 네일샵 등을 방문하여 멘티 학생과 현장체험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식도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문화 활동을 1~2회 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EDI : **선생님의 조언을 새겨 다음 HOPE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센터 차원에서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교사 만남의 현장

<2016년 NK교사아카데미> 현장스케치

NK교사가 말하다 : 새 삶을 꿈꾸게 한 NK교사아카데미 연수

● 김하나(가명)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의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에서 교사를 했던 사람 중 한 명인 나는 2016년 11월 5일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제7기 NK교사아카데미에 참가하였다. NK교사아카데미는 희미했던 나의 진로 전망에 뚜렷한 선을 그어 준 고마운 기회였다.

나와 유사한 처지에서 당장 급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일터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많은 북한교사 출신 분들께 저의 미흡한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NK교사아카데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에서의 교수 강습이나, 교육경험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된 남한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과 교양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었다. 특히 놀이블럭을 활용한 소통 수업과 마인드맵을 활용한 수업, 외국인을 섭외하여 참여시킨 수업과 체육 수업 등의 참관은 한반도에서 통일미래 교육을 꿈꾸고 있는 북한출신 교사라면 누구에게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다. 매 과목마다 그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교육방법은 21세기 새 세대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그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방법이다. 연수 기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탐방은 한국의 역사와 발전을 더 잘 알게 하고 현 시대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한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이번 연수는 북한출신 교사들에게 한국사회의 발전된 면모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였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기간 남한 선생님들은 전공 분야에서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여 주었으며 북한에서의 교육현황과 비판적으로 알고 배워야 할 부분도 허물 없이 나누며 소통하였다. 남한교육과 북한교육의 현황을 공유하고 좋은 교육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11월 12일 연수 때는 남북한교사어울림활동 시간을 가졌는데, 남북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허물없이 서로 알려주며 웃고 떠드는 자리를 통하여 남한으로 내려와서 소외되는 것 같던 느낌도 한 순간에 사라졌다. 또 앞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 교육을 위해 작은 지식과 힘으로나마 함께 할 의지를 굳히게 하였고 역시 남과 북은 한 민족이고 한 겨레임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런 나날 속에 마감한 NK교사아카데미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한 민족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어지는 수료식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한 가족같이, 한 회사 직원처럼 대하여 주시고 챙겨주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2016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해인 2017년을 준비하는 저를 비롯한 북한교사 출신 선생님들이 새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NK교사아카데미를 통해 남한에서 나의 비전을 새롭게 보강하며 보다 윤택한 새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남한교사가 말하다 : 남북교사 어울림에 싹이 났어요!

● 김진훈 교사 | 숭의여고

대학시절 배낭여행을 갔던 두만강 어귀에서 북한의 아이들을 보았다. 물장구 치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본 뒤로 북한의 아이들은 나의 삶에 숙명처럼 다가왔다. 가까이 있지만 닫혀 있는 북한이야말로 나의 남은 삶을 걸고 도전해야 할 숙제처럼 여겨졌지만 막막했다. 남북관계는 갈수록 얼어붙었고, 북한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마땅치 않았다. 그렇게 북한에 대한 나의 비전도 막연해질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남북교사어울림에 나와주세요"
"네!? 정말요?"

너무나도 신기했다. 북한에서 오신 선생님과 교육자로 만날 기회가 오다니, 놀라울 뿐이었다.

2016년 11월 12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만난 북한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교사부터 사범대 교수까지 다양했다. 그분들이 지닌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남한사회에 대한 호기심이 느껴졌다. 남북교사어울림은 남한출신 7명의 선생님과 탈북하신 7분의 선생님이 일대일로 짝을 이뤄 진행되었는데, 내 짝꿍은 북한에서 사회를 가르친 하나(가명) 선생님이었다. 매우 잘생긴 꽃미남이셨다. 어색한 첫 만남에 유철민(인천신현초) 선생님의 진행으로 놀이블럭을 통한 놀이학습 프로그램(마음열기 수업)이 시작되었다. 함께 놀이블럭을 통해 자신의 행복했던 시절을 만들어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짝꿍 선생님이 지내셨던 북한의 산과 들이 그려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놀이블럭은 온데간데없고 짝꿍 선생님과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 놀이블럭은 서로 편안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였다.

이어서 교육영상콘텐츠 감상 및 토의시간이 이어졌다. 북한의 초등학생 '진미'의 이야기를 다룬 '태양아래'라는 다큐멘터리를 잠시 감상하고, 남북한 교육을 비교해보았다. 북한의 획일적 정치사상 교육의 단점 외에도 교사와 학생의 밀접한 생활 교육과 책임 교육을 엿볼 수 있었다. 남한의 자유롭고 다양한 수업방식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와 책임의식은 배울 점이 많았다. 특히 북한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남한에서 탈북학생을 지도하고 계신 한반도(가명)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한 학교의 차이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올해 개봉했던 'JSA 남북공동초등학교'라는 영상도 10분 정도 보면서, 통일이 된 후의 학교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통일학교는 큰 도전이지만, 남한 내의 탈북학생들을 통해 이미 미래가 찾아온 것이라고 조창완(서해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다.

세 번째 시간에는 백지은(화성수영초), 김진실(인천효성남초) 선생님께서 남한의 학습지도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다양한 교구를 통해 숫자와 도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하는 방법과 함께, 코넬식 노트, 마인드맵 등을 이용해 내용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셨다.

평소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고민하던 탈북 선생님들은 열띤 질문을 이어가셨다. 북한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던 소망(가명) 선생님께서는 배우는 기쁨에 얼굴이 상기되셨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묻고 배우는 기쁨이 넘쳤다. 남한과 북한의 선생님들이 다르지 않으며, 배움을 즐거워하고 아이들을 향한 열정으로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밥을 먹고 토론하고 웃으며 악수했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심어졌다.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기뻤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야겠지만,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남북교사의 만남은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을 완성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되었다.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노력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통일을 향한 이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을 틔워 잘 자라게 해야겠다. 남북한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배움의 기쁨이 넘치길 기대한다.

NK 교사아카데미

탈북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모색

<제7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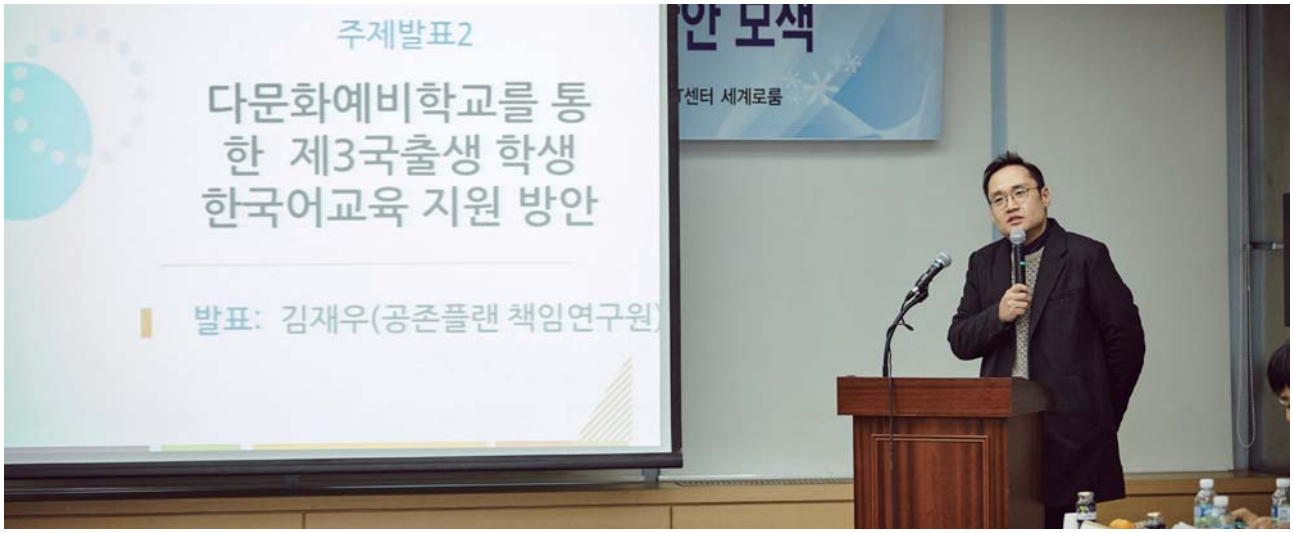
● 정재훈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제7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이 2016년 11월 23일에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열렸다. 탈북학생 교육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와 교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마다 열리는 탈북학생 교육 포럼의 올해 주제는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이었다.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탈북학생 교육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0.8%였던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은 2016년에는 2.1%로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학생 중도탈락률 0.77%에 대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포럼은 먼저 김정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되었다. 김정원 소장은 '탈북학생 교육의 방향: 학업중단 예방을 넘어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 만들기'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통하여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법적기반 및 정착단계별 지원체제 구축',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감소', '교사의 탈북학생 이해 확대 및 교육지원 경험 축적', '통일 대비 준비 토대 확장'등의 성과를 짚어보며, 이제 탈북학생 교육의 방향은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적응 지원을 넘어 개별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정착단계별로 탈북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인천 부흥중학교의 하정숙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멘토링', '진로진학 상담 및 캠프', '교사 연수', '수업연구회'활동 등을 통하여 정착지학교에서의 탈북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

탈북학생 전환기 교육기관인 한겨레 고등학교의 윤도화 교감은 사례발표를 통하여 탈북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초기 적응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탈북학생의 심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및 현행 '전환기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명학교 변정훈 교사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탈북학생 위탁교육'사례발표를 통하여 탈북학생 대안학교 위탁교육이 각 시·도교육청의 일반적인 위탁교육과 같이 실시되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특히 제3국 출생(중도입국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재우 공존플랜 책임연구원은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운영하는 '다문화예비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예비학교 관계자에게 제3국 출생 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연수 실시가 필요하며 '제3국 출생 학생 밀집 정착지에 예비학교를 신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는 맞춤형 교육지원에서 '맞춤형'의 의미를 '진로교육'과 '통합교육'의 맥락에서 새롭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영통중학교 박명옥 수석교사는 하나원에서 정착지로 갈 때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단계에서부터 학교 배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현행 교사 멘토링제를 개선하여 해마다 멘토·멘티를 바꿀 것이 아니라 정착 초기부터 사회 진출하기까지 장기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정중학교의 이돈집 교사는 탈북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안팎의 '협력적 돌봄 체계 구축'과 탈북학생 지도에 전문성이 있는 전담교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영선 전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사는 하나원에서는 의욕이 많았던 탈북학생들이 정착지학교에 가서는 의욕을 잃고 자신감도 없어진 모습을 많이 봤다며 정착지학교 편입학 후 1년간은 각종 성적 평가를 유예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포럼 참석자들은 탈북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과제 등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둥이를 키워내는 선생님들

<제7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 및 발표회> 현장스케치

● 정서윤 | 한국교육개발원

「제7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시상식 및 발표회가 2016년 12월 22일(목)에 교육부 주최, 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는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우수사례들을 학교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실시되어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여 왔다.

작년부터는 탈북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이 다양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멘토링 등 개별학생 지도에 초점을 맞춘 교육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개인부문 수상을 확대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개인 8개 사례, 단체 4개 사례, 총12개 사례가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 7명에게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상, 우수상 수상자 5명에게는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이 수여되었다.

제7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영역별 수상자

개인 부문

구분		수상자(無順)		훈격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초등 교원)	최우수상	대전	도하영(대전판암초등학교)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경기	이한샘(시흥능곡초등학교)	
		제주	진문희(제주외도초등학교)	
	우수상	경북	이지현(경북구평초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장상
		울산	심영보(울산야음초등학교)	
		경북	장은영(영주중앙초등학교)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중등 교원)	최우수상	경기	장현선(경기신양중학교)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경기	장승아(경기금촌고등학교)	

단체 부문

구분		학교명/연구회명		훈격
탈북학생 교육 우수 학교	최우수상	경북	연수초등학교 (학교장 : 안효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우수상	충북	화랑중학교 (학교장 : 김대복)	한국교육개발원장상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최우수상	광주	백두대간수업연구회 (회장 : 정병수[정광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우수상	전남	그린나래수업연구회 (회장 : 길서영[부주초])	한국교육개발원장상

이날 시상식이 끝난 후 최우수상 수상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탈북학생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남한 학생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학생이 처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학교, 가정, 지역복지센터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부분을 발표 내용에 담고 있었다.

탈북학생들의 경우 남한 학생들과 외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또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말투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남한 학생들과 같을 것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탈북학생들의 경우 북한 출신의 부모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또 탈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상처 같은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잘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한샘 선생님은 우연히 3명의 탈북학생을 맡게 되었는데, 이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조금 낮은 것 외에는 여느 남한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으나 우연한 기회를 통해 탈북학생의 상처를 보게 된 후에 탈북학생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탈북학생에게 맞는 차별화된 교육, 부모님이 신경써주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함께하는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하였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학생들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북한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주하면서 학생을 돌봐야 할 탈북학생 학부모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빠 미처 자녀들까지 신경 쓰기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북한의 경우 교육에 있어서 교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도 비슷한 환경일 것으로 생각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만 전적으로 믿고 맡기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탈북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담임선생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학부모가 남한의 교육문화를 이해하고, 자녀의 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발표에 담겨 있었다.

장현선 선생님도 탈북학생과의 첫 만남을 일반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학생이었다고 회상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지원해준다면 학업성취도도 높은 편이었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출신임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과 연로하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북한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방황하는 학생을 보고 정서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후 선생님은 독서와 다양한 문화활동을 또래들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탈북학생들의 다수는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 어린 나이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탈북 하는 과정에서 새로 재편된 가족관계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하고, 어렸을 때 자신을 떠

났다가 남한에서 재회하게 된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 등 학생과 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학생들에게 심리·정서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탈북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사례가 있었다. 발표회에서 7개의 사례가 발표되었고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사례밖에 소개하지 못했지만 단체 부문에서 수상한 학교와 수업연구회에서도 탈북학생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6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 사례집』에서 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발표회가 끝나고 선생님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시상식 및 발표회를 마쳤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최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가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 현장에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교원연수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활동소식

7차년도(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성과평가회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탈북학생 교육 업무 담장자들과 7차년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시·도교육청별 2016년 탈북학생 대상 맞춤형 멘토링 현황 공유를 목적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가 모여 성과평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행사명 : 7차년도(2015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성과평가회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 2016년 6월 28일(화) 13:30~17:30
- 장 소 : 한국장학재단
- 대 상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업무담당자 등 20명
- 내 용 : 7차년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성과평가
- 문 의 : 교수학습개발팀 정서윤(02-3460-0695 / seoyoon@kedi.re.kr)

2016년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연수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교육부와 통일부의 후원 아래<2016년 전담코디네이터 연수>를 2016년 6월 22일(수) ~ 24일(금)까지 2박 3일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들의 바른 역사

관 확립을 위한 백제 역사문화탐방, 한국 교육과정의 이해 특강과 교육현장에 구현되는 현장 방문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전담코디네이터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행사명 : 2016학년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연수
- 주 최 : 교육부, 통일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일 시 : 2016년 6월 22일(수) ~ 6월 24일(금), 2박 3일
- 장 소 : 공주·부여 일원 (공주한옥마을, 공주시 관광단지길)
- 대 상 :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및 관계자 등 30명
- 내 용 : 백제 역사문화 현장 체험, 한국교육과정의 이해 특강, 차동초등학교 수업 참관
- 문 의 : 교수학습개발팀 정서윤(02-3460-0695 / seoyoon@kedi.re.kr)

2016학년도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중간보고회 (상호컨설팅)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의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7~8월에 권역별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주제가 비슷하거나

인접한 지역별로 묶어서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수업연구회 관계자, 컨설팅 위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수업연구회별 중간보고, 전문가 컨설팅 및 상호 컨설팅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명 : 2016학년도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중간보고회(상호컨설팅)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 2016년 7월~8월
- 대 상 : 각 시·도교육청 지정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 장 소 : 7월 21일, 한국교육개발원 회의실 (서울, 인천 경기 수업연구회)
  8월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회의실 (광주, 전남 수업연구회)
  8월 23일, 대전 KTX역 회의실 (충북, 충남, 경남 수업연구회)
- 내 용 : 수업연구회 운영 중간점검, 전문가 및 상호컨설팅
- 문 의 : 학교지원팀 김윤선(02-3460-0111 / ysk02@kedi.re.kr)

제5기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HOPE] 진로캠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인 HOPE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각 분야에서 잠재능력과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탈북학생 20명[HOPE 5기]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번 HOPE 진로캠프는 1박2일로 진행되었으며 17명의 탈북학생들과 4명의 진로상담교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설계를 위해 마련된 본 캠프에서 학생들은 진로상담 전문가들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진로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 행사명 : 제5기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프로그램 진로캠프
- 일 시 : 2016년 8월 1일(월)~2일(화), 1박 2일
- 장 소 :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 대 상 : HOPE 5기 학생, 학부모, 멘토교사
- 내 용 : 진로 상담, 선배와의 대화, 진로 체험
- 문 의 : 교수학습개발팀 안경식(02-3460-0617 / toughaks@kedi.re.kr)

2016년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교재 개발 중간보고회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교재 개발·보급 사업 중간 점검 및 토론을 통한 교재 내용 내실화를 위하여 2016년 9월 5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탈북학생의 언어·사회·문화적 문해력 증진을 위해 5명의 집필진과 10명의 아동문학작가가 개발한 교재 지문 내러티브 및 학습활동에 대해 교육부와 초기교육기관 및 정착지학교 교사가 발전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행사명 :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교재 개발 중간보고회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 2016년 9월 5일(월) 15:00 ~ 17:30
-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대 상 : 교육부, 집필진, 초기교육기관 및 정착지학교 교사,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
- 내 용 :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교재 개발 현황 중간 보고, 토론
- 문 의 : 교수학습개발팀 김유연(02-3460-8966 / youyeon@kedi.re.kr)

2016년도 탈북학생 교육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2016년 11월 2일 ~ 3일까지 1박 2일간 17개 시·도·교

육청에서 탈북학생 교육 업무 담장자들과 2016년 사업 평가 및 2017년 사업 계획, 주제 토의 등 관련 협의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에서는 2016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사업 평가 및 성과를 공유하고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탈북학생 교육지원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3국 출생 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행사명 : 2016년도 탈북학생 교육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실시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 2016년 11월 2일(수) ~ 11월 3일(목), 1박 2일
- 장 소 : LW컨벤션(서울 소재)
- 대 상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학생 교육 지원 사업 업무담당자 등 25명
- 내 용 : 2016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사업 평가, 제3국 출생 학생 교육 지원 방안 논의, 2017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사업 운영계획 공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 문 의 : 교수학습개발팀 정서윤(02-3460-0695 / seoyoon@kedi.re.kr)

2016학년도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1차년도 보고회 실시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는 교육부 요청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서 현재 10개교가 2016년 3월 1일부터 2개년에 걸쳐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정책연구학교는 학교 기반의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탈북학생 교육에 대한 선도학교 및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2016년 11월 24~25일까지 1박 2일간 <2016학년도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1차년도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개의 정책연구학교, 교육부,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은 2016학년도 정책연구학교 운영의 성과를 공유하고, 2017학년도 정책연구학교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행사명 : 2016학년도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1차년도 보고회
- 일 시 : 2016년 11월 24일(목) ~ 11월 25일(금), 1박 2일
- 장 소 : 그랜드힐튼 서울
- 참석자 : 정책연구학교 관계자, 교육부,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
- 내 용 : 2016학년도 정책연구학교 운영 성과 공유 및 2017학년도 정책 연구학교 운영 방향 논의
- 문 의 : 교수학습개발팀 김유연(02-3460-8966 / youyeon@kedi.re.kr)

2016학년도 제7기 NK교사아카데미 연수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재북 시 교원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탈북교사의 잠재력 향상을 통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역량함양 및 통일 대비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NK교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기 NK교사아카데미 연수는 2016년 11월 5일(토)~12월 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총4회 연수를 진행했으며 기본역량, 교육역량, 소통역량을 중심으로 강의,

토론,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NK교사들이 한국 교육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역사 등의 강좌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사 어울림 활동'및 '학교 현장 견학(서울구일초)'등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행사명 : 2016년 NK교사아카데미(7기) 연수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 2016년 11월 5일(토)~12월 3일(토), 총 4회
-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 본원 제2회의실 및 유관기관
- 대 상 : 재북시 교원 유경력자
- 내 용 : 기본역량, 교육역량, 소통역량의 영역을 중심으로 강의, 토론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 총 30시간 연수
- 문 의 : 학교지원팀 김윤선(02-3460-0111 / ysk02@kedi.re.kr)

제7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발표회 및 시상식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2016년 12월 22일(목) 탈북학생 지도 교원의 사기 진작 및 탈북학생 교육역량 제고를 위하여 <제7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는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학교 현장으로 파급시키기 위하여 2010년부터 올해까지 7회 시행되어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 행사명 : 제7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발표회 및 시상식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 2016년 12월 22일(목)
- 장 소 : 한국교총 2층 다산홀
- 대 상 : 탈북학생 지도교원 외
- 내 용 :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발굴, 시상, 보급
- 문 의 : 교수학습개발팀 정서윤(02-3460-0695 / seoyoon@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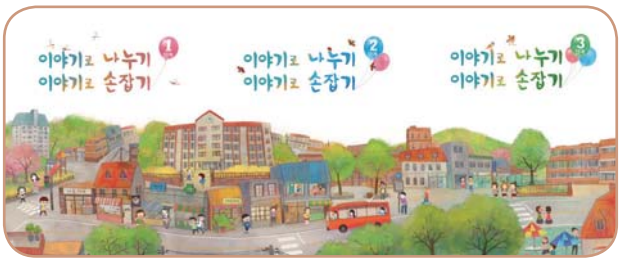
2016학년도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최종보고회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2016년 12월 16일 ~ 17일까지 1박 2일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의 한 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학년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연구회별로 주제에 따라 <수업연구회 활동 사례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 충북 수업연구회는 <탈북학생 초기 적응 지원 및 정착지 학교 연계>, 광주, 충남 수업연구회는 <지역 네트워킹 및 지역 자원 활용>, 서울, 인천, 전남, 경남 수업연구회는 <탈북학생 지도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수업연구회 참여교사 좌담회를 통해서는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탈북학생 교육과 수업연구회 활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 행사명 : 2016학년도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최종보고회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17일(토), 1박 2일
- 장 소 : 그랜드힐튼 서울
- 대 상 : 각 시·도교육청 지정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관계자
- 내 용 : 수업연구회별 운영 성과 공유
- 문 의 : 학교지원팀 김윤선(02-3460-0111 / ysk02@kedi.re.kr)

센터발간자료

『이야기로 나누기 이야기로 손잡기』 교재 발간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교재 「이야기로 나누기 이야기로 손잡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문학작품 읽기를 통해 탈북학생의 언어·사회문화적 문해력을 총체적으로 증진시키고, 탈북학생들이 겪는 정서 ·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이 교재의 목적입니다.

「이야기로 나누기 이야기로 손잡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3권의 교재로 개발되었으며, 1단계는 초등학교 1~3학년, 2단계는 초등학교 4~6학년, 3단계는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 자료명 : 이야기로 나누기 이야기로 손잡기 1~3단계
- 대 상 : 언어 · 사회문화적 문해력 증진이 필요한 탈북학생
- 내 용 : 문학작품, 이야기 파악하기, 우리말 실력 키우기, 내면화하기 등으로 구성
- 문 의 : 교수학습지원팀 김유연(02-3460-8966 / youyeon@kedi.re.kr)

2016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 사례집 발간

『2016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 사례집』은 <2016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2016년 열일곱 번째로 개최된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 및 발표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각 지역 수업연구회에서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신 교육기관과 선생님을 격려, 치하하고 그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자료명 : 2016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 사례집
- 대 상 : 탈북학생 지도 교원 외
- 내 용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우수사례(개인, 학교, 수업연구회)
- 문 의 : 교수학습지원팀 정서윤(02-3460-0695 / seoyoon@kedi.re.kr)

『2017 겨울호』 통권 23호

발 행 일	2017년 01월 26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발 행 인	김재춘
제 작	디자인펌킨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바우뫼로 1길 35 (우:06762)
홈페이지	www.hub4u.or.kr
구독문의	02-3460-0695 / seoyoon@kedi.re.kr